

역사의 여성, 여성의 역사

이 해령*

전경옥·유숙란·이영실·신희진, 『한국여성 정치사회사』 1

전경옥·변신원·박진석·김은정, 『한국여성 문화사』 1

전경옥·김은실·정기은, 『한국여성 인물사』 1

숙명여자대학교 아시아여성연구소, 2004

1

최근 서점가에는 정치사 위주의 전통적인 역사서보다는 일상사 내지 미시사의 분야로 분류될 책들이 대거 진열되어 있다. 역사학의 전반적인 분화와 관련된 현상이자, 역사란 무엇인가에 대한 인식의 변화 내지 전환과 관련되어 있을 것이다. 그 복잡한 내막은 따로 있겠지만, 중요한 것과 그렇지 않은 것의 구분이 국가중심의 역사를 쓰던 과거에 비하자면 그리 간단치 않아졌다는 것만은 분명해 보인다. 이 파편적인 것들의 역사가 우리

* 성균관대 강사

에게 어떤 인식론적 해방과 새로운 삶의 윤리적 가치를 제시해줄지는 아직 장담할 수 없지만, 더 일찍이 아래로부터의 역사 그리고 소외된 자들의 역사라는 페러다임에서 출발한 여성사의 출현은 결코 파편적이라고 치부할 수 없으며 나아가 아래로부터의, 소외된 자들의 역사를 능가하는 측면이 있다. 왜냐하면 여성사는 기존 역사서술의 중심대상이자 주체로 상정된 존재들, 즉 국가·민족·계급 등의 실정성에 불가피하게 의문을 던지기 때문이다. 그런 이유에서 여성사의 서술은 단순히 역사적 재현대상으로 여성을 등록시키는 것에 만족하지 않기에, 전체사의 보완물로서의 부분사가 아니라 또 다른, 어쩌면 불가능할 수 있는 전체사를 기도하게 된다.

숙명여대 아시아여성연구소에서 펴낸 세 권의 책은 '한근여성근현대사' 시리즈 가운데 개화기부터 1945년까지를 다룬 것이다. 정치사회사, 문화사, 인물사로 구성된 이 책들이 다루고 있는 대상시기의 문제성은 이미 오래전 인문학계 전반에서 제기된 '근대성'이란 화두에서 잘 나타나 있다. 근대성이란 화두는 역사법칙의 인도에 따르는 발전사, 혹은 자생사로 무리없이 받아들여지던 근대국민국가 그리고 자본주의의 발전사 중심의 역사서술에 대한 회의를 야기하면서, 다양한 제 영역의 시원과 역사성을 탐색하게 하는 전환적인 계기로 작용했다. 또한 수탈사나 억압사로 통념화된 식민지 시대의 역사인식에 다소 신선한 균열을 준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이러한 연구에 나타나는 담론위주의 분석방법은 자칫 어떤 위험성을 내포하기도 한다. 즉, 역사에서 '언어로의 전환' 때문에 현실적이고 육체적인 형태로 겪었던 과거 사람들의 고통이라는 잔혹한 사실을 간과하게 될 위험이 있다는 것이다.¹⁾ 예컨대, 식민지 시기 민족주의에 대한 비판은 민족으로 단일하게 호명된 피식민자들이 실제로는 불균등한 권력체계를 이루었으며, 억압의 지점 또한 달랐다는 것을 보여준다는 점에서 역사에 한

1) 포스트모던적 역사학에 대한 이러한 비판은 리처드 에번스, 『역사학을 위한 변론』(이영석 옮김, 소나무, 1999), pp.240~245 참조.

걸음 다가서 있지만, 그것을 단순히 식민주의의 역모방이나 정체성 담론으로 환원시킨다면, 그러한 호명을 가능하게 했던 실제의 억압상과 현실적 고통을 간과할 위험이 있다.

다행스럽게도, 아시아여성연구소의 '한국여성근현대사'는 그 시리즈의 역동적인 구성과 서술방식으로 이러한 위험을 벗어나 있다. 이것은 어쩌면 일차적으로는 당대의 여성의 삶과 경험이 근대와 맺는 혼란스럽고도 복잡한 관계 때문이 아닌가 싶다. 식민지가 삶과 권력이 교차하는 근대의 실험장이라는 베데딕트 엔더슨의 말에 빗대어, 여성은 삶과 권력이 교차하는 식민지였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이 책들에서 제시된 갖가지 형태의 사료와 사진들은 여성이 근대적 사회와 삶을 구조화하고 형성하는 제분야-정치, 사회, 교육, 문화와 관련하여 여성이 얼마나 집요한 삶의 대상이자 지식의 산출 장소, 나아가 실천의 지점이 되었는가를 증명해주고 있다. 이러한 풍부한 사료의 제시는 지금까지 가려진 역사 속의 여성들을 전면화하면서도, 여성들을 수동적인 삶과 권력의 대상이 아니라 그 주체로 재조명함으로써 역사 속의 여성을 넘어서 여성의 역사를 창출하고 있다.

2

『한국여성 정치사회사』는 해당 시기 위로부터의 제도와 정책, 그리고 아래로부터의 운동이라는 거시적 틀을 유지하여 기존의 역사서술에 익숙했던 독자들을 편안하게 유도하면서도, 국가·계급·민족에 내재된 가부장적 억압구조가 어떻게 '여성'과의 관계에서 중층적으로 재현되어 나타나며, 여성들의 사회참여는 그것과 어떤 공모 혹은 균열을 야기했는가의 서술관점을 지속적으로 환기시키고 있다. 특히 이 책에서 저자들이 중점을 둔 것은 바로 아래로부터의 역사이다. 최근 신여성의 활동과 삶에 대한

연구가 국문학·역사학·사회학·교육학 제분야에서 고조되면서 대중적 관심의 대상으로도 부각된 듯하지만, 당대 기층 여성들의 삶은 충분히 조명받지 못했다. 당대 기층 여성들의 삶에 주목하고자 하는 이유는 이 책의 관점과 서술방법을 제시한 1장에 다음과 같이 명쾌하게 정리되어 있다.

역사 속의 여성은 단일화 할 수 없는 다양한 계층으로 존재해왔다. ...다양하고 분화된 여성 주체를 드러내어 '중심을 재구성하여' 한국 여성사를 복원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는 여성 중에서도 엘리트 여성이 아닌 소외되었던 일반 여성의 삶을 통해 전체사를 완성하는 작업이다. 여성을 하나의 독자적 범주로 설정하는 동시에 여성 간의 차이를 인식하는 것이 필요하다. (『한국여성 정치사회사』, p.15)

이 책은 우선 굵직한 민족운동사에서 여성, 특히 기층여성의 참여에 각별히 관심을 기울였다. 국채보상운동에 참여한 기생과 첩들, 특히 3·1운동에 참여한 서울 시대 800명의 기생과 은사수산제사장에서 근무하던 96명의 여공들의 이야기는 우리가 좀처럼 알지 못했던 사실이다. 그것은 3·1운동에서 여성이 차지하는 중요성이 그다지 조명되지 않았다는 것과도 무관치 않을 것이며, 나아가 세계 초유의 '거족적' 민족해방운동이라 평가된 3·1운동의 전개과정에 어떠한 여성강령도 포함되지 않았다는 본질적인 사태와도 맞닿아 있는 문제일 것이다. 대한제국시기에는 국민, 식민지 지배 하에서는 민족의 일원임을 천명함으로써 사회적 발언과 참여의 장에 입장할 수 있었던 여성의 상황은 이 책의 저자들이 왜 기층여성의 생활과 투쟁에 남다른 관심을 표명하는가와도 관련이 깊다. 4장 4절에서 조명한 여성노동운동과 여성농민의 운동, 그리고 해녀투쟁은 여성의 권리 주장이 다른 대의에 의해 양보되거나 희생되어서는 안 되는가를 보여주는 훌륭한 사례라고 생각한다. 예컨대, 저자들은 1924년 발생한 선미여공 노동투쟁은 임금인상과 값게 일본인 감독의 성희롱에 대한 시정조치 등을 요구했으며, 식민지 노동운동의 대명사인 1929년 원산노동자 총파업은 산

전 산후 3주간 휴양 및 수유 시간의 보장과 같은 모성보호를 요구했다는 사실에 주목하고 있다. 저자들은 이에 대해 “민족적 성적 차별에 대한 문제의식을 표출하면서 동일 부분, 동일 지역 노동자의 동정파임을 이끌어 내면서 서로 협조하는 계급적 연대성을 보여 주었다”, “이는 단순한 생존 권적 요구를 넘어서 여성 노동자로서 권리를 확보하고자 한 것이었다”고 평가한다.

나는 이러한 평가에 공감하면서도 좀더 적극적인 해석과 평가를 내렸으면 한다. 여성노동자들이 내건 요구는 단순히 상황에 따라 삭제되거나 양보될 수 있는 요구가 아니기 때문이다. 자유주의자건 사회주의자건 엘리트 중심의 여성운동은 민족해방이나 계급해방이라는 전체운동의 부분운동이라는 지위를 수락함으로써 결과적으로는 젠더적 강령에 있어서는 후퇴를 자초하게 되고 말았으며, 해방 후에도 이러한 상황은 오랫동안 지속되었다. 당시의 노동자들이 내건 요구가 동우회나 근우회 등의 여성단체의 주요강령이었으며 그것의 반영이라 하더라도, 여성들의 삶과 노동의 경험 속에서 제기된 것은 그 의미와 무게에 있어서 다르기 때문이다. 돌이켜보면, 남한의 노동운동사에서 1970~80년대 초반 여성노동자들의 투쟁이 지니는 그 선도적 의의에도 불구하고, 1987년 이후 중공업 대단위 노동현장을 중심으로 전개된 노동운동은 자신의 선배들이었던 여성들을 망각함으로써 자본과 국가권력의 성분할적 노동통제를 여전히 효과하지 못했다. 이러한 반복의 역사를 생각해보면, 여성운동에 대한 적극적인 해석은 실천의 길잡이가 될 수 있을 것이다.

3

나의 전공이 문학이다보니 좀더 관심을 갖고 본 것은 『한국여성 문화사』이다. 아무래도 정치사회사가 정책과 제도, 전환점을 이루는 굵직한 사

건들에 주목하기 마련이라면, 문화사는 그 묵직한 선들만으로는 확인할 수 없는 것들을 지평위로 끌어올린다. 『한국여성 문화사』는 무엇보다 정치사회사만으로는 보여줄 수 없었던 여성의 근대성 경험의 중층적이고 균열적인 양상을 다양한 여성들을 둘러싼 당대의 담론, 그리고 끊임없이 변화해 갔던 일상과 문화를 통해 조망하고 있다. 이 책에서도 여성작가로 다루고 있는 소위 1세대 신여성인 나혜석·김명순 등의 급진적이면서도 비참한 삶은 해방과 혼돈이라는 근대성의 본질적인 경험구조가 식민지 여성에게는 보다 고통스럽게 각인될 수밖에 없었다는 것을 보여준다.

이와 관련하여, 비록 이 책의 서술에서는 뚜렷하게 표명되지는 않았지만 여러 역사적 주체의 정체성의 혼란과 재구성을 야기한 근대성의 표상은 사실 여성이었다는 게 이 책의 저자들이 전제하고 있는 관점이라고 생각한다. 이 책에서 역점을 두고 다루고 있는 학교와 공장, 도시의 소비공간 등 여성의 공적 영역으로 진출자체가 이 시기를 전대의 시기와 단절시키는 역사적 사건이었으며, 나아가 사회 전체의 경험양식의 젠더화 그리 젠더적 해석을 더욱 촉진시켰기 때문이다. 근대화가 가져온 다양한 상품과 대중매체의 출현 그리고 그것에 대한 여성의 경험 양식, 또한 여성의 육체는 물론 이미지, 그것을 둘러싼 갖가지 담론을 통해 여성이 도구화·상품화된 현상의 제시와 분석은 기왕의 풍속시적 접근을 넘어서는 측면이 존재한다. 예컨대, 여성노동자들의 저항을 다루면서도 공장에서의 영화나 연극의 상연 스포츠가 어떻게 여성노동자들의 문화적 향유 욕망을 이용한 노동통제의 도구가 되었는데에 대한 분석(171~173쪽)은 미처 몰랐던 사실을 일깨웠다. 새로운 상품과 대중매체의 출현은 여성을 소비의 주체로 호명했지만, 그것의 향유가 갖는 해방과 억압이라는 중층적 성격과 계급적 차이에 따른 문화적 향유의 불균등성 문제는 여러 번 강조해도 좋을 것이다.

한편 이 책은 또한 『사회정치사』와 마찬가지로 식민지배와 사회에 내재된 이중의 가부장적 구조가 여성의 정체성 형성에 어떻게 작용했나를 놓

치지 않고 있다. 근대작가와 근대화가로서의 자신의 정체성과 주체성을 확립하려던 여성들의 굴곡을 다룬 부분(137~162쪽)은 그녀들의 힘겨운 행보 속에 드리운 가부장제의 그늘을 놓치지 않고 있다. 예를 들어, 생각보다 많은 수였던 여성화가들이 왜 미술학교에 진학했어도 본격 미술의 주류에서 벗어난 자수를 선택했나, 그리고 빼어난 재능에도 불구하고 전문 예술인의 길보다는 교육계에 종사했는지는 당대 여성의 교육과 사회활동이 정향되는 방식을 잘 보여주는 사례였다.

여성들의 사회진출이나 활동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여성의 영역은 가정이었다. 특히 화폐수입을 야기하는 노동만이 가치있는 노동으로 간주되는 자본주의 사회에서 남녀의 성역할의 분할은 이전보다 더 강화되었다고도 할 수 있다. 따라서 여성과 가정생활을 결혼의 형태, 가족생활을 둘러싼 담론, 가정부인의 일상으로 나누어 살펴본 3장은 여성문화사의 구성에 핵심적이라면 핵심적일 것이다. 왜냐하면 지금도 그러하듯이 근대사회에서 가정은 자타가 여성이 주권자임을 선포한 영역이기도 하지만, 바로 그렇기 때문에 여성의 저항과 억압이 일상적으로 중첩된 영역이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생활 면에서 불합리한 인습을 제거하고 능률적, 계획적, 기능적, 위생적 과학적인 생활을 정비한다”는 일제의 ‘생활쇄신’ 정책이 그 근대적 수사에도 불구하고 농촌 여성들에게는 오히려 열악한 생활조건을 더욱 악화시키고 노동력의 부담을 가중시켰다는 지적은 근대화의 아이러니를 보여주기에 충분하다.

무엇보다 제4장 여성과 섹슈얼리티는 가장 흥미진진하게 읽은 부분이였다. 이 시기 여성의 섹슈얼리티에 대한 연구 문학 연구를 중심으로 활발하게 전개되고 있어 기왕에 익숙한 이야기들이 많았지만, 한 분과학문만으로는 놓치기 쉬운 보다 통합적인 면모를 보여주고 있다. 이 책에 따르면, 식민지 시기 내내 가벼운 가십거리에서 진지한 듯한 과학적 접근까지 성지식은 끊임없이 유포되어 그야말로 성지식의 양성화(陽性化)라 할 만하지만, 실제로 성지식은 양성화(兩性化)되어 여성에 대한 저급하고 비

인격적인 이미지를 유포하는 데 일조했다. 또한 가장 오래 된 직업이라고 치부되어 마치 인류가 종말하지 않는 이상 없어질 것 같지 않은 매춘의 전면적 사회화는 사실은 말 그대로 식민(植民)과 함께 이땅에 상륙했으며, 식민의 역사가 심화될수록 그 사태도 심각해졌다는 사실도 지적하고 있다. 이러한 개괄적인 접근과 함께, 실제 매춘여성의 참담한 생활상에 대한 조명을 통해 실감을 높여주었다. 저자들도 밝히고 있듯이, “여성의 몸은 권력이 현실적으로 작용하는 지점이자 저항의 시발점이라는 두 가지 의미를 지닌다.”(290쪽) 이러한 관점에서 보았을 때, 억압적인 모성담론을 자신의 모성경험으로 균열을 야기한 나혜적의 사례나 열정적 연애의 실천자들, 그리고 머리모양의 파격적인 변화나 의복개량으로 자신의 몸에 대한 새로운 권리를 표현했던 모던걸의 이야기는 서구사상의 설익은 모방이나 상업주의적 유행의 흐름으로 치부할 수 없는 시사점을 주고 있다.

4

최근 구술사는 스피박의 때로는 절망적이게 들리는 물음, 즉 “서발턴(the subaltern)은 말할 수 있는가”에 대한 긍정적인 실천으로 부상되고 있다. 구술사는 역사에 쓰여 있지 않은 존재들의 역사를 쓴다는 소박한 의미 이상을 지니고 있다. 그것은 “일관된 목적론적 기획화에 매끄럽게 구성된 국가/민족의 집단서사 속에 끊임없이 이의를 제기하고 다른 목소리를 불러내며 통합될 수 없는 차이의 기억을 재구성하고자 하는 실천”²⁾의 일환일 수 있기 때문이다. 『한국여성인물사』는 독립운동가 이병희, 제주항일투쟁에 참여하기도 했던 고이화, 남편의 부재나 무책임 속에 생계

2) 황병주, 「기억의 역사화-통합의 서사전략과 분열증적 기억들」, 『문학동네』 34 (2003.봄), p.340.

를 꾸리며 살았던 고부간인 권명완과 최숙자, 그리고 고등교육을 받은 '신여성'이면서도 전형적인 현모양처의 삶을 살았던 박현선, 그리고 패션계의 대모로 일컬어지는 전문직 여성인 최경자 등 “동일한 시대상황 속에서 개별인물들이 겪었던 공통적이고 차별적인 인식과 체험을 구술작업을 통해 부각시키고자 하였다.”(16쪽) 솔직히 고백건대, 구술사라는 새로운 방법론에 대해서는 몇몇 논문을 읽을 적이 있어도 구술사 자체의 텍스트를 본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 나는 마치 드라마를 보듯 빨려들어갔으며 소설이 아닌 인생이 없구나 하는 손쉬운 감상에 빠지기도 했다. 그분들이 어떤 특정한 경험을 기억하는 것을 의미화하는 것을 저항하면서 자신의 역사를 서술했듯이, 나도 이들의 경험적 진술에 어느 정도는 저항해야만 이러한 작업의 의미를 나아가 그들의 삶이 내게 전하는 메시지를 어렵풋하게나마 느낄 수 있었다. 그것은 개인이 기억 속에서 호출하는 역사와 특정 집단과 개인을 주체로 호출하는 역사는 마치 어긋나게 비껴가거나 만나기는 하지만 완전히 포개지지는 않는 선들의 관계일지도 모른다는 점이다. 읽 어보기를 권하는 것 이외에 이 책을 통해 얻은 감동을 달리 전할 길은 없을 것 같다.

다만 내가 이 구술사 텍스트를 읽으면서 다소 혼쾌하지 않았던 것은 너무나 기계적으로 그녀들의 어투를 그대로 받아적으려 했다는 점이다. 물론 정제된 표준어로는 전달할 수 없는 구술 상황을 독자에게 생생하게 전하고자 한 의도이겠지만, 그것 자체가 그 여성들의 연령과 성장환경, 생활기반 등에서 연역된 통념화된 선입관을 강화시켜줄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특히, 미묘한 발음의 차이를 괄호안에 표준어음까지 명시하면서까지 드러낼 필요는 없을 것 같다. 그것은 역설적으로 음성중심주의의 폭력일 수 있기 때문이다. 구술사는 소설과 같은 텍스트에서 나오는 구어적 상황의 재현 이상이어야 하며, 그러기 위해서는 기술적 차원에서 이점을 고려 해주었으면 싶다.

5

끝으로 비판적인 독자로서의 서평자의 의무를 다하기 위해서 몇 가지 제언을 하고자 한다. 여성사는 궁극적으로는 양성의 젠더사적 접근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것은 이 책의 저자들 또한 염두에 두고 있는 바이겠지만, 여성이 주어가 되기도 하고 여성이 목적어가 되기도 하는 이 책의 서술에서 특징적인 것은 여성은 주어이든 목적어이든 복수로 등장하지만 남성은 가부장제라는 추상명사로 전제되어 있다는 인상을 준다. 그 원인은 대상 시기의 사회구조에 내재되어 있는 가부장제를 암묵적으로 반(半)봉건적인 것으로 규정하면서 가부장제에 의해 일정한 이득을 얻고 있는 남성들 또한 반봉건적일 수밖에 없다는 식의 전제가 깔려 있기 때문이다. 가부장제 = 봉건성은 아닌 것이다. 이러한 식의 접근은 남성을 언제나 견고한 권력의 주체, 억압의 주체로 상정한다는 점에서 문제적이다. 식민지 근대성은 남성들에게 피식자로서의 전략과 여성들의 사회진출에 의한 가부장적 위치의 동요라는 이중의 지위하락을 경험하게 했다는 것이 그렇게 틀리지 않은 사실이라면, 이 시기 여성을 둘러싼 사회적 계관계와 담론의 구조변동은 남성들의 개별적이고 구체적 경험의 차원에서도 접근되어야 할 것이나, 가부장제에 대한 고정적인 이해는 이 책의 내용을 다소 중복되게 만드는 주원인이기도 하다.

다른 하나는 일제말기 여성동원에 대한 분석의 관점이다. 『한국여성 정치사회사』나 『한국여성 문화사』는 일본과 조선에 차별적으로 적용된 모성 담론을 통한 동원의 차원에서만 이 사태를 바라본다. 이것은 전시체제에 의해 강화된 피식민지민의 정신적 육체적 동원정책인 것은 분명하지만, 엘리트 여성들이 여기에 호응한 것은 단순히 일제의 강요나 피식민 민족으로서의 정치적 권리를 자각하지 못했기 때문이 아니라 ‘근대성’의 심연을 보여준 것이라고 해석할 수는 없을까? 사카이 나오키에 따르면, 총력전체제의 특징중 하나는 자본주의가 산출한 계급 분리나, 차별 받는 주변

집단을 국민국가에 최대한 통합시킨다는 점이며, 그것은 그러한 주변집단에게 이전에는 주어지지 않았던 시민권을 제한적이거나 보장함으로써 작동한다. 즉, 친일의 회로는 물론 총동원의 경험은 보다 역동적인 젠더 정치학의 차원에서 접근되어야 할 것이다.

기왕의 여성사 서술이 없었던 것은 아니지만, 대상과 시각에 있어서 제한적이어서 아쉬움을 느꼈던 차에 이번에 출간된 세 권의 책은 앞으로 나올 1945년~1980년, 그리고 1980~2000년의 한국근현대여성사 시리즈에 대한 기대를 갖게 한다. 이 책이 전문적인 연구자보다는 학생들과 다양한 독서층을 위한 길잡이 역할에 역점을 두고 있기 때문에 더 그러하다. 세 권의 책은 전체사 구성의 한 부분이면서도 서로 독자적인 방법론을 가지고 있기에 ‘따로’ 또 ‘같이’ 읽어보기를 권유한다. 몽클한 감동으로 읽었던 제주해녀 고이화 씨의 말을 전하면서 끝내고자 한다. 이 말은 바다의 품속에서 가장 행복했다던 그녀의 삶이 길러온 부드럽고 강한 여성주의의 윤리를 대변하는 것 같아서이다.

이제 다시 태어나면 무엇으로 태어날지?

만약에 사람으로 태어나면, 그냥 모든 인간을 다~사람처럼 대할래, 사람처럼 넓게. 만약에 구렁이 태어나도 좋은 걸로 태어나서 남을 물지 않는 좋은 걸로, 더 좋은 걸로...

사람으로 태어나면 해녀일 하고 싶고.

『한국여성인물사』, p.158

